

AACC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개회식

개 회 사



2023. 5. 30.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회원기관 재판소장님, 재판관님을
비롯한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4차 재판관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를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제회의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4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대면회의로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생각됩니다. 짧지 않은 여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
연합의 15개 회원기관이 이번 회의에 참석해주셨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재회의 반가움에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해봅니다.

2010년 창설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지난 13년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회원 수는 창설 당시 7개
에서 현재 21개 기관으로 세 배 규모로 증가하였고, 회원

기관 간의 상시적인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3개의 상설사무국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훌륭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은 명실상부한 성공적인 헌법재판기관 지역 협의체로서 자리매김 하였다고 자부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을 통한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보장, 법치주의 증진이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한 노력으로 구현해 가야할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는 AACC 연구사무국의 활동을 통해 회원기관들이 서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지혜를 나누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는 ‘사법예의 접근: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을 중심으로’입니다. ‘사법예의 접근’은 우리 연합의 목표인 인권 및 법치주의 구현과 직결되며, 그 필연적인 전제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개인의 헌법재판에의 접근’, ‘사법에의 접근 관련 최근 동향’, ‘사법에의 접근 보장을 위한 기본권’을 각 세션 주제로 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며, 논의의 결과는 연말 발간될 연구 자료집으로 그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법의 지배 확대를 위한 평등한 사법접근의 보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목표로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과제이지만, 그 연구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출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은 그 가치의 귀중함을 이루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특별히 알제리 헌법재판소와 뉴질랜드 대법원에서 게스트로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아시아 대륙을 넘어 보다 폭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사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며, 각별한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첫 해인 1988년에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연간 3천 건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 사건 수는 금년 말 경 5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에게 한층 가깝고 든든한 기본권 수호의 보루가 되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귀한 손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더욱 영광입니다. 오늘 회의 세션 후 계획되어 있는 방문일정을 통해 재판소 청사에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회의가 서로의 지혜와 더불어 우정 또한 함께 나누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5. 30.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